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인식 일깨우는데 큰 몫 기대

呉明 체신부 장관



먼저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협회 기관지로 “정보화사회”를 창간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통신은 국가경제사회 발전의 기반이며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제5공화국 출범이후 정부는 “통신의 선진화 계획”에 착수, 그동안 통신 시설의 대량 확충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왔고, 전기통신사업의 능률적인 경영을 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발족시켰으며,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데이터통신을 설립했고, 공중전화망의 개방과 단말기 자급제 실시로 통신산업발전을 촉진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전기통신 관련법체제도 전면 개편, “전기통신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체신부가 국가적 입장에서 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통신 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등 종합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산망 개발보급과 이용의 촉진으로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통신의 선진화 계획”이 결실을 맺게 되어 통신의 2대 숙원이었던 “전화적체 일소 및 신청 즉시 가설체제”와 “전국 자동즉시 통화권”을 완성함으로써 금년은 우리나라가 통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뜻깊은 정보통신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1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과 맞맞추어 우리의 전화시설도 1,021만회선으로 크게 늘어나 세계적으로 10번째의 전화시설 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분야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최근에는 회선 개방에 의한 민간 VAN 서비스가 실현됨으로써 정보통신이 기업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모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고도 정보화의 차원에 이르려면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체신부는 정보화사회의 촉진을 통해 선진조국창조의 길을 앞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아래 이미 2000년대를 향한 통신사업 중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적극 육성은 물론 첨단기술의 조기습득을 통한 기술 국산화 시책과 전문기술 인력양성 등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를 앞당겨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는 물론 범국민적인 협조와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발족된 배경도 전산망사업자들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해 전산망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산망의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 및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에 기여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진흥협회는 많은 사업을 통해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및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될것으로 믿으며 이를 위해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협회기관지로 “정보화사회”가 발행됨으로써 협회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것이며 정보화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일깨우는데도 큰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정보화사회”의 창간을 거듭 축하하며 정보통신진흥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

폭넓은 이해의 광장 마련되기를

李龍兌 한국정보산업협회 회장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지구촌은 情報化 물결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으며, 머지않은 2000년대에는 高度 情報化社會 실현으로 새로운 인류 문명의 章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용량의 통신위성개발, 광통신 기술의 개발등 최근의 電氣通信 기술의 진보는 괄목할 만한 것이며 더욱

기 情報處理 기술과 通信技術의 융합이 급속히 진전됨으로써 情報·通信의 기능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情報·通信技術의 진보는 산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세계 정치·사회의 결속도 한층 더 強化 시켜줌으로써 세계인류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새로운 물결로 말해주는 이 情報化는 비교상대적으로 選擇할 수 있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擧사의 논리를 거부하는 絶對價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情報化 추진 주역산업인 국내 情報産業은 그 산업기반을 아직

정비하지 못한채 경쟁력이 크게 미약한 실정이며 관련정책 역시 構想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주저할 수도,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없는 것이 情報産業界의 사명이다. 오직 情報化의 鄉을 향해 매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구축·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民間 情報産業界는 창의와 개척자적 정신으로 情報化 實現의 정열을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국내 電算網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情報通信振興協會가 업계의 연로를 확충하고 도약의 여건 조성을 위해 會誌를 創刊하게 됨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믿습니다.

부디 本 會誌의 創刊이 情報化 추진의 계기가 되고 폭넓은 이해의 광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각계의 호응과 성원하에 내실있는 성장이 거듭되길 바랍니다. ■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창립과 협회지 “정보화사회”의 창간을 먼저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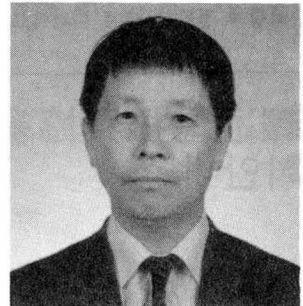
정보통신분야의 공동협력기구로서 전산망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화사회 기반구축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창립된지 한 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법제, 조직, 사업기반구축등 협회창립에 따른 기틀이 마련되고 이제 협회의 기관지 “정보화사회”가 창간되어 전산망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 각 분야에 정보교환 및 홍보의 기회가 확대되게 된것은 협회의 발전과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뜻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1세기의 우리나라 근대 통신사에서 컴퓨터 정보통신이 70년

대에 그 여명을 밝힌후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컴퓨터통신은 빠른 속도로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며, 국산 전자교환기의 개발, 전국 규모의 전자통신망, 전국적이고도 국제화된 컴퓨터통신 네트워크, 국가기간전산망계획, 올림픽전산화등 고도의 대형시스템 개발능력, 부가가치통신망사업의 본격화, 당대 최고속 전산기술의 도입등 국내적 여건이나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H/W 및 S/W 기술이 노련해지면서 일

정보통신분야의 공동협력기구

成 瑞秀 시스템공학센터 소장



취월장하고 있음은 두루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화사회의 효

창간축하메시지

울적 건설을 지향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노력의 창출과, 산업계·학계·관계의 다각적이고도 진보적인 지혜의 뒷받침이 있어야겠지만, 협회와 같은 전산망사업자의 협력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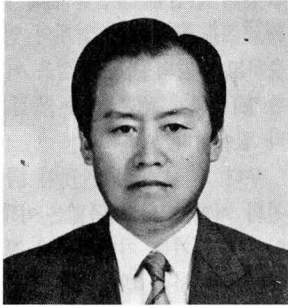
를 유지하고 각종 공동사업을 추진할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 또한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소중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귀 협회가 전산망사업자 및 기타

유관기관 등과의 성실한 협력속에서 사랑받는 단체로서 무궁히 발전하기 바라며, “정보화사회”가 그 임무의 수행과 정보화시대의 개화에 일익을 담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

정보화사회 실현위한 선도적 역할

朴圭泰 연세대 전자공학과 교수



먼저 情報通信振興協會가 발행하는 “情報化社会”의 창간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통신망이 발전하고 컴퓨터의 이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도 발전하여 이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점차 이렇게 정보화사회로 다가가고

있는 때에 이 분야에서 정보통신의 이용을 촉진하고 육성할 전문지의 출간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고도화할수록 정보량은 증대하게 마련으로 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情報化社会에서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集散하고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뱅크와 같은 분야가 크게 번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정보를 소유하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바로 理想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신망

확장으로 어느 곳에서나 통신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해 정보의 국제적 교류가 날로 증가하여 세계는 공동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情報通信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데에 따라서 문화교류를 비롯한 국제교역량이 더욱 증대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科學과 技術의 高度發展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情報化社会”가 앞으로 맡아야 할 책임이 참으로 크며 情報化社会를 이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情報化社会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情報通信의 이용자에게, 연구자에게, 기술인에게 정보화를 알리는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情報通信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 그리고 선진기술을 신속히 전달해 줌으로써 情報伝達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며, 항상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刊行物이 되기를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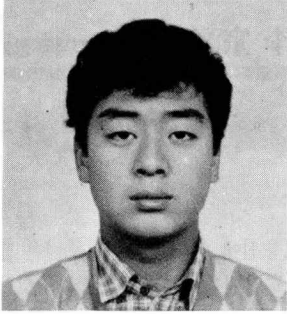
情報通信振興協會 입회안내

情報化社会의 기반조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내 전산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업계지원책을 펴나가기 위해 출범한 저희協會는 電算網事業에 관련된 모든 업체 및 기관을 會員으로 맞아들인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회원자격 :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 전산망사업자(H/W업체 및 S/W업체), 공중통신사업자등 전산망에 관련된 모든 기관 및 업체.
2. 가입비 : 50만원
3. 월회비 : 5만원(분기별로 납부)
4.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전화 : 796-6444, 796-6555)

「정보화」의 꽃 올바로 피우길...

李炳基 전국대학컴퓨터씨클(Unicos) 연합회장



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편안한 자세로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각국은 앞다투어 정보화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전산망 보급확대와 이용촉진 및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사명이 막중하다 하겠읍니다.

현재, 국가차원의 정보화사회건설을 위한 노력은 각종 연구에 대한 투자와 적극적인 국민마인드 조성의 움직임을 통해 엿볼 수 있고,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사업 역시 위의 일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 대학컴퓨터씨클연합회도 지난 11월에 설립된 것으로 여기에는

체신부와 한국데이터통신으로부터 16비트 퍼스널 컴퓨터와 통신장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학간 정보통신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들에게 정보화를 인식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화는 이제 시대적으로 절대가치가 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 분야는 곧 사회에 나아가 사회인으로 동참, 어디에서인가 일을 하게 될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계 각층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정보화의 꽃을 올바로 피우기 위해서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포함,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며 다시 한번 “정보화사회”지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

21 세기의 고도 정보화사회의 건설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정보통신진흥협회의 기관지 “정보화사회”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하루가 바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방안에서도 물가나 주식시세 등의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 선진기술의 신속한 전달 등 정보전달 기능을 다할 본지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제한 없음.
2. 길 이 : 제한없음
3. 마 감 : 매달 10일
4.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28 한국데이터통신사옥 1204호 정보통신진흥협회 회지 편집위원회(전화: 796-6444 · 796-6555) 앞.

5. 유의사항 :

- 가급적 200자 원고지를 사용하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도표나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
- 외국어는 국문으로 번역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괄호 안에 국문번역을 병용.

6. 기 타 :

- 필자의 사진(명함판 또는 반명함판) 1장과 필자소개서, 연락처, 전화번호 명기.
- 고료를 우송받을 수 있는 온라인 통장번호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기.